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2013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 간 개최된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4개의 같은 에너지 분야의 전시를 통합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에너지 전시회로 위상을 높였다. 에너지 업계의 전문분야가 한 곳에 모인 만큼 볼거리가 풍성했던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들여다 본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 에너지 전시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보일러, 조명, 단열재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제품과 국내의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 에너지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는 에너지효율 중심의 '녹색에너지전'과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신재생에너지전'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기술관련 '코리아스마트그리드 엑스포' 및 이차전지 관련 '인터 배터리전'으로 구성되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LS산전 등 약 270개 업체가 900개 부스를 통해 최신제품과 장비, R&D 성과물을 전시하는 등 비즈니스 관련 최신 정보를 선보였다. 국내 에너지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전시출품 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현장에서 이어주는 수출상담회도 열었다.

국내 최초, 에너지 유관 4개 합동 전시

'2013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가장 큰 이슈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 유관 4개 전시회가 합동 개최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같은 분야이면서도 각기 다른 시기에 개최되었던 4개 전시회가 처음으로 통합 개최되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IT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열렸다. 올해 전력수급 위기를 겪은 만큼 국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절전 의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에너지 산업 간 융합 및 시너지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다.

녹색에너지전

에너지효율 제고 및 실생활에서 절약상시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대거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으며, 경동나비엔은 온수와 전기를 동시 생산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는 마이크로 보일러를 전시했고 LG전자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한 가스엔진 구동방식 시스템 에어컨을 선보였다.

신재생에너지전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별 설비 및 부품, 제품 등을 전시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신기술을 집약해 보여주었다. 한화 솔라원에서는 소금, 눈, 바람 등에 강한 내부식성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을 선보였으며, 삼성인더스에서는 현재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을 출품했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지능형 전력망 구축 관련 최신 제품과 장비 등이 전시돼 스마트 그리드 산업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송암시스템에서는 별도 변환장치 없이도 간단하게 스마트 그리드 망을 구성할 수 있는 모뎀 장비를 전시했으며, 이젝스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그리드 장비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출품했다.

인터배터리전

전지산업 관련 제품과 부품 등이 전시돼 최신 전지산업

비즈니스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미섬시스템에서는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을 전시했으며, 솔브레인은 전지 수명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전해액 제품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수출상담회와 세미나, 시상식 및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는 물론 해외 국가관과 건물에너지관, 전기자동차관 등 테마관을 통해 관람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제4의 에너지’로 일컬어지는 신재생에너지와 ‘제5의 에너지’로 지칭되는 에너지 절약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행사가 되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 에너지 절약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관공, 2013 에너지절약 자금투자 설명회 실시

‘2013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부대행사로 10.16(수) 코엑스에서 「에너지절약시설자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에너지다소비 업체 및 ESCO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는 2013년도 에너지융합리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전년도 지원 사업 중 주설비별 투자사례를 선별하여 제작한 「당신의 에너지 투자 파트너」라는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투자사례집을 배포하여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투자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에너지효율자금 지원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한 설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보급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